

존 던의 “거룩한 쏜넷”: 부활의 노래

정 경 미
(한밭대학교)

Jung, Kyungmi. (2006). John Donne's "Holy Sonnets": The song of rebirt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4), 277-290.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eaning of the death in Donne's "Holy Sonnets" and divine poems. Death issue is the important theme and is used frequently in his poems. He expresses an assertion of faith about the defeat of death and wishes to gain new birth and eternal life through death. Ironically death must be died for rebirth and an inevitable death. Death is another way to get new life and return to Christ. Many readers think that "Hymn to God my god, in my sickness" is Donne's most distinguished achievement in his divine poems. The poem shows that death must be accepted willingly because it is only through death that man can reach heavenly bliss and gain new life. He develops an antithetic parallel between two hills and two trees. Paradise and Adam's tree which brought death into the world are related analogically to Calvary and the Cross, which brought resurrection and eternal life. Death and resurrection are shown to be conjoined in the poem. To sum up, Donne tried to pursuit death for rebirth and modeled after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John Donne/Holy Sonnets/divine poems/death/rebirth/resurrection, 존 던/거룩한 쏜넷/종교시/죽음/재생/부활]

I. 서론

모든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뛰어 넘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한계이며 피할 수 없는 절망의 늪이다. 역사 이래로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 왔으나 그 한계를 넘지는 못하였다. 삶의 유한성은 인간에게 절망감을 주었지

만 인간은 끊임없는 내세의 부활을 꿈꾸었다. 특히 종교시에서는 신의 사랑을 통해 삶의 한계인 죽음을 뛰어 넘으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존 던(John Donne)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죽음’의 소재를 자주 사용하였다. “노래와 쏜넷”(Songs and Sonnets)의 여러 작품들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었거나 간접적으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산문집, 설교문, 종교시 등에서 죽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었다. 던이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의 전기적 사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겪었던 동생 헨리(Henry)와 친척들의 순교적 죽음, 10명의 자녀들 중 반을 잃을 만큼 반복된 불행한 가족의 죽음, 특히 아내의 죽음 등은 던의 삶을 억압하며 많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는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죽음의 본질에 고민했을 것이고 삶 속에서 죽음은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을 것이다. 어쩌면 던에게 있어 죽음은 삶만큼 친숙한 대상일 것이다. 그러므로 던의 작품 속에 나타난 죽음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죽음을 심각하거나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활동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죽음을 통해 새로운 부활을 꿈꾼다. “거룩한 쏜넷”과 말년에 쓰여진 종교시에서 이러한 던의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던의 “거룩한 쏜넷”(Holy Sonnets)과 말년에 쓴 몇 편의 종교시속에 나타난 죽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분석하고, 죽음을 통해 시인이 추구하고자 한 부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II. 죽음과 역설

던은 연애시와 종교시 속에서 죽음에 대한 독특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가 자신의 시속에서 보여주는 죽음은 수동적이고 절망적인 죽음이 아니다. 던은 죽음과 능동적으로 맞서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고, 긍정적이고 재생을 위한 죽음을 노래하였다.

“거룩한 쏜넷”은 죽음이 수동적으로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설을 보여 준다. 파멸을 위한 죽음, 절망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죽음, 긍정적 죽음들이 종교시에 생명력과 긴장감을 준다. 죽음과 당당히 맞서 싸우고 죽음 속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으려는 역설적 태도가 “거룩한 쏜넷 X”에서 확실히 나타난다.

죽음! 뿔내지 마라. 사람들은 그대를
강하고 무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대가 쓰러 트러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불쌍한 죽음! 그대는 나도 죽일 수 없다.
 그대의 그림자에 불과한 죽음 휴식과 수면으로부터도
 많은 즐거움이 흘러나온다면, 그대로부터는 더 많은 즐거움이 흘러나온다.
 우리들 중 가장 착한 자가 그대와 동행하지만
 그것은 육체의 안식이요, 영혼의 구원이다.

Death be not proud, though some have called thee
 Mighty and dreadful, for, thou art not so,
 For those whom thou think'st, thou dost overthrow,
 Die not, poor death, nor yet canst thou kill me.
 From rest and sleep, then from thee, much more must flow,
 Much pleasure: then from thee much more must flow,
 And soonest our best men with thee do go,
 Rest of their bones, and soul's delivery.¹⁾ (ll. 1-8)

이 시는 극적인 대화체를 사용하여 의인화된 죽음과 대결하고 있다. 시인은 역설적이고 조롱 섞인 어조로 죽음과 당당히 맞서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강하고 무서운 것으로 생각한다. 한 번의 죽음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완전한 상실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인은 죽음이 무섭다는 일반적 생각을 거부하고 지적 분석을 통해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시인은 ‘죽음! 뽑내지 마라’ 라든가 ‘불쌍한 죽음’ 등의 냉소적 표현을 통해 죽음을 조롱하고, 죽음이 자신을 결코 파멸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인은 제 8행에서 ‘죽음은 육체의 안식이요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하며 죽음을 예찬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죽음은 파멸이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삶의 한 부분인 것이다. 죽음은 고통이나 파멸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역설은 끝 부분에서 더 큰 역설로 발전하게 된다.

한 번의 짧은 죽음이 지나면 우리는 영원히 깬다.
 죽음 더 이상은 없을 것이며, 죽음! 그대는 죽을 것이다.

One short sleep past, we wake eternally,

1) A. L. Clements(Ed.) *John Donne's Poetry* (London: Cambridge UP,1982), p. 84. 이하 모든 시의 인용은 이 책에서 하며 줄 수만 표시한다.

And death shall be no more; death, thou shalt die. (ll. 13-14)

죽음이 인간을 잠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뽑낸다면 아편이나 마술이 더욱더 인간을 잠들게 할 수 있으니 쓸데없이 뽑내지 말라고 타이른다. 또한 한 순간의 죽음이 지나가면 영원히 ‘깬다’는 강한 역설을 통해 인간의 영원 불멸사상과 죽음에 대한 강한 역설들을 보여준다. 인간의 죽음이 그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 영원할 수 있다는 역설은 시인이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는 강한 자아의식을 보여준다. 한 순간의 죽음이 지나면 영원할 수 있다는 역설적 논리는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강한 역설을 보여준다. 죽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노래는 “거룩한 쏜넷 V”에서도 계속된다.

“거룩한 쏜넷 V”는 던이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만들어진 소우주에 비유하여 새로운 부활을 노래한 시이다.

나는 원소와 아름다운 정신으로
교묘하게 만들어진 작은 세계이다.
그러나 검은 죄가 내 세계의 두 부분을 끝임 없는 밤에
팔아버렸고, 오! 나는 죽어야만 한다.
높은 하늘 너머로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고,
새로운 땅에 대하여 쓸 수 있는 당신은
나의 눈에 새로운 바다를 쏟아 부어라. 그래서
나는 눈물로 나의 세계에 진지하게 침몰할 것이다.

I am a little world made cunningly
Of elements, and an angelic sprite,
But black sin hath betrayed to endless night
My world's both parts, and, oh, both parts must die.
You which beyond that heaven which was most high
Have found new spheres, and of new lands can write,
Pour new sea in mine eyes, that so I might
Drown my world with my weeping earnestly, (ll. 1-8)

제 1행에서 ‘나는 교묘히 만들어진 작은 세계이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던 특유의 과학적 태도와 지적 분석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교묘히 이루어진 작은 세계이지만 죄로 인해 부패되고 더럽게 되었다고 시인은 말하였다.

제 3행의 ‘검은 죄’는 타락된 시인의 정신과 육체의 상징으로서 끊임 없는 악의 세계에 빠져있고 결국은 죽어야 한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의 세계이지만 제 4행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필연적 죽음’(must die)이 된다. 그러므로 시인의 계속되는 자아의 외침 속에서 불과 물의 이미지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려 하고 있다.

끝없는 죄악의 세계를 해매는 정신과 육체는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그 죽음은 새로운 부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반복되는 ‘새로운’의 의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며 부활의 가능성을 강조하게 된다. 가장 높은 하늘 너머로 새로운 천체를 발견한 천문학자나 새로운 땅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는 탐험가들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의 신비한 힘을 통해 시인의 눈에 새로운 바다를 쏟아 부어 자신의 세계를 침몰시켜 달라고 한다. 제 7행의 ‘나의 눈에 새로운 바다를 쏟아 부어’의 표현은 던 특유의 과장된 표현으로서 그의 시적 기교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자신의 조그마한 눈에 자신의 죄를 씻어 낼 수 있는 거대한 바다를 쏟아 부어 새롭게 정신과 육체가 부활하려고 한다.

만일 더 이상 침몰시킬 수 없다면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세계는 불태워야 한다. 욕정과 질투의 불길이
지금까지 그 세계를 불태우고 오염시켜 왔다.
오! 주여 당신과 당신 집의 맹렬한 열기로
그 불길들을 물리치고 나를 태워 주소서.
그 열기는 집어삼킴으로 치유됩니다.

Or wash it if it must be drowned no more:
But oh it must be burnt! Alas, the fire
Of lust and envy have burnt it heretofore,
And made it fouler; let their flames retire,
And burn me, O Lord, with a fiery zeal
Of Thee and Thy house, which doth in eating heal. (ll. 9-14)

‘침몰’이나 ‘새로운 바다’의 이미지리를 통해 부활하려는 육체와 정신이 마지막 여섯 행에서 더욱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타다’와 ‘불’의 이미지리로 발전한다. 시인의 어조는 점점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 제 9행에서 정신과 육체는 물로서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불태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끊임없이 치솟는 가슴속의 더러운 정욕과 질투의 불길은 너무나 강렬하여 회개의 눈물로는 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맹렬한 불길로 더러운 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또한 신의 성

령을 집어 삼킴으로써 죄에서 치유될 수 있다고 했다.

시인은 죄로 인해 정신과 육체가 부패되고 더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강하게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죄가 너무나 깊어서 단순히 물로 씻어내는 것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 물로 씻어내는 것보다 더 강한 불로 태워서 새롭게 태어나려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타락한 정신과 육체가 물에 잠기거나 불에 태워짐으로써 소멸되거나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heal)됨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꿈꾸게 된다. 또 그 부활은 신의 은혜로 가능하며 죽음은 새로운 삶을 위한 과정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부활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III. 죽음과 부활

던이 겪어 던 여러 번의 죽음 중 1617년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이다. 아내의 죽음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거룩한 쏜넷 XVII”에서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던의 슬픔을 엿볼 수 있다. 33살이었던 앤 모어(Anne More)가 열 번째 아이를 출산한 후 죽었을 때 그녀의 죽음은 던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계기로 죽음이 진정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발견했고 당신은 나의 갈증을 채워주셨지만
거룩한 목마름의 수종증이 아직도 나를 녹입니다.

But though I have found Thee, and Thou my thirst hast fed,
A holy thirsty dropsy melts me yet. (ll. 7-8)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은 시인에게 커다란 슬픔이다. 시인은 사랑하는 여인이 죽고 그 영혼을 천국에 빼앗겨 버린 후 자기의 마음을 천국의 일에만 집착시켜 왔다고 고백한다. 여인에 대한 슬픔이 크면 클수록 시인은 신에게 의지하게 된다. 시인은 죽은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에타게 찾는다. 신에 대한 갈망을 ‘거룩한 목마름의 수종증’(a holy thirsty dropsy)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코로나”(La Corona)에서 시인은 신의 사랑에 대한 갈증을 ‘강한 목마름’(a strong sober thirst)(l. 12)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 감정이 심화 발전된 것을 느낄 수 있다. 조안 베넷(Joan Bennet)은 아내의 죽음 후 던은 더욱더 신의 사랑을 원하게 된다고 말한다.

의학에 관한 던의 지적 관심은 가난과 병에 지쳐 여러 명의 자녀가 죽고, 계속적인 질병 특히 아내의 죽음 등 17년의 결혼생활 동안의 슬픔 때문에 심화되었다. 질병과 죽음의 이미지들이 그의 후기 산문과 운문에 나타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신에 대한 그의 갈망은 수중증이다(Bennet, p. 36).

계속된 자녀들의 죽음, 반복된 자신의 질병 등 가족의 불행은 던이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아내의 죽음은 던에게 커다란 정신적 방황을 가져왔다. 이러한 정신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의 품속으로 들어가기로 진정으로 바라며 신의 사랑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사랑은 수중증이다.

그러나 당신이 모든 것을 제공하여 그녀를 대신하여
나의 영혼을 구하시니, 내가 어찌 더 많은 사랑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But why should I beg more love, when as Thou
Dost woo my soul, for hers off'ring all Thine: (ll. 9-10)

시인은 신이 모든 것을 제공하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느낀다. 신의 사랑에 대해 불만족하던 시인은 신이 모든 것을 제공하여 자신의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커다란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는 시인의 노력은 “거룩한 쏘넷 I”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거룩한 쏘넷 I”에서 시인은 인간의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간청이 신을 대하는 복종적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인 인간이 죽어가고 있으니 당연히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시인은 항변적 태도를 보여준다.

당신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작품이 썩도록 버려두시렵니까?
지금 나를 잡아 주소서, 나의 종말이 서둘러 오고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향해 달리고, 죽음은 나를 맞으러 빠르게 옵니다.
나의 모든 쾌락은 어제의 것입니다.
나의 흐린 눈은 어느 쪽으로도 돌릴 수 없습니다.
뒤에는 절망이 앞에는 격렬한
공포가 있고, 나의 연약한 육체는
내부의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Thou hast made me, and shall thy work decay?
 Repair me now, for now mine end doth haste,
 I run to death, and death meets me as fast,
 And all my pleasures are like yesterday;
 I dare not move my dim eyes any way,
 Despair behind and death before doth cast
 Such terror, and my feebled flesh doth waste
 By sin in it, which it towards hell doth weigh: (ll. 1-8)

제 1행에서 시인의 태도는 독자를 놀라게 하고 있다. 신이 자신을 창조했으니 당연히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어야 한다는 궤변적 논리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시인의 태도는 진실로 신의 구원을 위하여 신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절박하게 자신이 구원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모든 쾌락은 지나간 과거의 것이며 죽음이 자신을 맞으러 오고 있고 종말이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며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그러므로 절박한 삶의 욕구를 느끼며 절대자인 신에게 매달리게 된다. 시의 초반에서 다소 도전적이고 항변적이던 시인의 태도는 시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커다란 하나님의 자비를 진심으로 원하게 된다.

당신의 은총으로 원수의 술책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자석처럼 역세계 나의 무쇠 같은 마음을 끌어당겨 주소서.

Thy Grace may wing me to prevent his art,
 And thou like adamant draw mine iron heart. (ll. 13-14)

인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인간은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품속에서 안전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총이 무쇠 같은 자신의 마음을 자석처럼 역세계 끌어 당겨 달라고 한다. 쇠붙이라면 무엇이든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강력하게 끌어당겨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거룩한 쏜넷 X”에서 죽음과 당당히 맞섰던 시인은 인간이 죽음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품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죽음을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죽음 속에서 새로운 부활을 찾으려 했던 시인은 그 부활의 시작을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찾고자 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거룩한 뜻으로 하나님에 의

해 인간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된다.

“병석에서 주님에게 드리는 기도”(Hymn to God my God, in my Sickness)는 던의 마지막 종교시라고 추측된다. 이 시의 창작 시기에 대한 의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1623년 죽음의 직전까지 간 위험한 병중에서 쓰여 졌다는 의견과, 또 하나는 실제로 던이 죽은 1631년 며칠 전에 쓰여졌다는 의견이다. 헬렌 가드너(Hellen Gardner)는 아이작 와튼(Izaak Walton)의 의견을 인용해 죽음의 병상에서 쓴 시라고 한다(Gardner, p. xxxviii). 그러나 아더 마로티(Arthur F. Marotti)는 이 시가 “기도”(Devotions)를 쓴 것과 같은 시기인 1623년 중병을 앓는 동안 쓰여졌다고 주장한다(Marotti, pp. 285-6). 던이 죽음 직전에 쓴 시로서 마지막 고별사가 될 수 있었던 이 시는 그가 회복된 후에 배포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 시는 감동적인 종교시로서 성스럽게 죽음을 준비하는 인간의 자기 관찰을 보여준다. 부활과 믿음, 천상으로의 갈망, 죄에 대한 회개 등의 주제를 다룬 이 시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의 영혼의 모습이 경건하고 엄숙하게 표현되었다.

언제나 성자들의 합창이 있는
거룩한 방으로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음악으로 만들어 질 것입니다. 내가 가면서
나는 여기 문턱에서 악기를 조용하고,
내가 그때 해야 할 일을 지금 미리 생각합니다.

나의 의사들은 사랑으로 성숙한
지질학자가 되고, 나는 그들의 지도가 되어
그 침상에 납작이 누워, 의사들에 의해
이 병상이 나의 남서쪽 통로이며
열병의 곤경이며 죽어야 할 해협임이 밝혀지게 될 것이므로,

나는 이 해협에서 서쪽을 보고 기뻐합니다.
비록 해협의 조수가 어느 누구도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나의 서쪽이 나를 해치겠습니까? 서쪽과 동쪽이
납작한 지도(나는 한 장의 지도입니다.)에서 하나인 것처럼
죽음은 부활에 연결됩니다.

Since I am coming to that holy room
Where, with Thy choir of saints forevermore,

I shall be made Thy Music, as I come
 I tune the instrument here at the door,
 And what I must do then, think now before.

Whilst my physicians by their love are grown
 Cosmographers, and I their map, who lie
 Flat on this bed, that by them may be shown
 That this is my South-west discovery
Per fretum febris, by these straits to die,

I joy, that in these straits, I see my West:
 For, though their current yield return to none,
 What shall my West hurt me? As West and East
 In all flat maps (and I am one) are one,
 So death doth touch the resurrection. (ll. 1-15)

시의 초반부터 장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시인은 성도들의 합창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턱에서 악기를 조율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곳에서 할 일을 여기서 미리 생각한다고 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가기 전 자신의 과거를 미리 한 번 반성하고자 한다. 두려움을 갖거나 고통스럽게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합창에 함께 참여하여 평화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거룩한 쏘넷 X”의 시적 분위기와는 달리 죽음을 평화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성숙된 자세를 볼 수 있다. 죽음 그 자체를 평화스럽게 받아들이겠다는 시인의 자세는 더욱 분명히 시각화된다. 죽음의 해협에 서서 어느 누구도 되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죽음의 필연성을 깨닫고 죽음을 상징하는 서쪽을 보고도 기쁜 마음이 된다. 왜냐하면 죽음의 상징인 서쪽과 생명의 상징인 동쪽은 납작한 지도 위에서 하나인 것처럼 죽음은 부활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시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부활됨으로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즐겁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죽음이 곧 부활과 연결된다는 생각은 다른 종교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삶과 죽음의 역설을 상징한다. 죽음은 만물의 끝이며 파멸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역설을 가능하게 한다.

나의 집은 태평양입니까? 아니면

동쪽의 부유한 나라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안안, 마젤란, 지브랄타
 모든 해협들 오직 해협들만이 그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쩌면 그곳은 야벳, 샴, 셈이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낙원과 갈보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담의 나무가 한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두 아담이 내 안에서 만나는 것을 보소서.
 첫 번째 아담의 땀이 나의 얼굴은 둘러쌀 때
 다른 아담의 피가 나의 영혼을 포용하게 하소서.

Is the Pacific Sea my home? Or are
 The Eastern riches? Is Jerusalem?
 Anyan, and *Magellan*, and *Gibraltar*,
 All straits, and none but straits, are ways to them,
 Whether where *Japhet* dwelt, or *Cham*, of *Shem*.

We think that *Paradise* and *Calvary*,
Christ's Cross, and *Adam's tree*, stood in one place;
 Look, Lord, and find both *Adams* met in me;
 As the first *Adam's* sweat surrounds my face,
 May the last *Adam's* blood my soul embrace. (ll. 16-25)

제 3연에서 죽음의 상징인 서쪽과 부활의 상징인 동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시인은 즐겁게 죽음을 맞아들인다. 또한 제 4연에서 부활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한다. ‘태평양’, ‘동쪽의 부유한 나라’, ‘예루살렘’은 부활을 상징하는 지명들이고 지상낙원이며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이다(Hunt, p. 105). 제 19행에 표현된 것처럼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오직 ‘해협(straits)’ 만을 통과해야 한다. 이 해협은 고통과 수난이 따르는 험난한 길을 의미한다.

제 5연에서는 ‘낙원’과 ‘갈보리’의 관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담의 나무’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낙원과 갈보리, 예수의 십자가와 아담의 나무는 하나이다(Stampfer, p. 286). 죽음을 가져온 낙원과 아담의 나무는 부활과 영원한 삶을 가져온 갈보리와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제 3연에서 죽음과 삶이 한곳에 연결되었다는 생각과 같은 의미이다. 갈보리 언덕에서 그리스도가 새로운 평화

의 지상낙원을 발견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므로 이들 둘은 결국 같은 의미를 갖는다. 낙원과 갈보리, 아담의 나무와 십자가, 삶과 죽음은 결국 하나이다. 즉 죽음과 삶은 하나이다.

또한 시인은 신의 사랑으로 육화(incarnation)된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을 ‘첫 번째 아담’으로 표현(Stampfer, p. 286)하고 있으며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갈보리의 언덕의 죽음의 형장을 통하여 낙원으로 원상 복귀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시인은 ‘두 아담이 자신 안에서 만나’(both Adams met in me)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된다. 갈보리 언덕의 죽음을 통해 다시 부활(resurrection)한 그리스도는 시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다.

던은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길을 대조적으로 표현함에 있어 지리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였고 그의 독특한 시적 기법을 보여 주고 있다.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시인은 죽음으로 인해 다시 부활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보여준다.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의 죽음을 통해 다시 태어난 것은 새로운 부활을 위한 죽음이었다. 이 죽음은 부활을 위한 역설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그가 종교시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죽음과 같은 것이다. 결국 그가 추구한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부활을 위한 재생의 죽음이다.

IV. 결론

죽음의 주제는 던의 종교시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 주제이다. 던은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고 한 번의 죽음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역설의 논리로써 죽음을 노래하였다. 죽음은 파멸이나 절망이 아니고 한 순간의 죽음이 지나면 영원히 ‘깨다’는 영원불멸 또는 새로운 부활을 보여준다. 그래서 죽음은 부활을 위한 ‘필연적 죽음’이 된다. 그러므로 시인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꿈꾸고 그 부활은 신의 은혜로 가능하며 죽음은 새로운 삶을 위한 또 다른 과정이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부활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이렇게 죽음을 통한 부활을 믿으며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려는 시인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시각화 된 것은 “병상에서 주님에게 드리는 기도”이다. 이 시에서 던은 부활을 위한 죽음의 구체적 모습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죽음을 상징하는 서쪽과 생명의 상징인 동쪽이 하나로 연결 되었고, 그리스도가 갈보리의 죽음을 통해 낙원으로 복귀했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가져왔다는 것을 시인은 깨닫고 그와 같은 죽음을 원하며 죽음을 기쁘게 받아

들인다. 결국 던이 종교사에서 계속해서 추구했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역설적 의미를 지니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재생을 위한 죽음이다.

참 고 문 헌

- Bald, R. C. (1970). *John Donne: A life*. London: Oxford UP.
- Bennet, J. (Ed.). (1964). *Five metaphysical poets*. London: Cambridge UP Press.
- Bloom, H. (Ed.). (1986). *John Donne and the seventeenth-century metaphysical poets: Modern critical view*.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 Brett, J. (1999). Distance, demystification, and Donne's divine poetry. *John Donne Journal*, 18, 101-126.
- Carey, J. (1981). *John Donne: Life, mind and art*. London: Faber and Faber.
- Clements A. L. (1990). *Poetry of contemplation: John Donne, George Herbert, Henry Vaughan and the modern period*. Albany, NY: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 Clements A. L. (Ed.). (1982). *John Donne's poet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Docherty, T. (1986). *John Donne, undonne*. London: Methuen & Co. Ltd.
- Fish, S. (1990). Masculine persuasive force: Donne and verbal power. In E. D. Harvey & K. E. Maus (Eds.), *Soliciting interpretation* (pp. 223-252). Chicago and London: The Univ. of Chicago Press.
- Gardner, H. (Ed.). (1952). *The divine poems*. Oxford: Oxford UP.
- Hodgson, E. M. A. (1999). *Gender and the sacred self in John Donne*. Associated Univ. Presses, Inc.
- Hunt, C. (1954). *Donne's poetry: Essays in literary analysis*. New Haven: Yale UP.
- Keast, W. R., (Ed.). (1971). *Seventeenth century English poetry*. New York: Oxford UP.
- Larson, D. A. (1989). *John Donne & twentieth-century criticism*. London: Associated UP.
- Lodge, D. (Ed.). (1972). *20th century literary criticism*. London: Longman Group Limited.
- Marotti, A. F. (1986). *John Donne, coterie poet*. Madison: The Univ. of

Wisconsin Press.

Miner, E. (Ed.) (1971). *Seventeenth-century imagery*. California: U of California, UP.

Mousley, A. (1999). *John Donne*. Macmillan Press LTD.

Smith, A. J. (Ed.). (1982). *John Donne: The complete English poems*. NY: Penguin Book's LTD.

Stampfer, J. (1970). *John Donne and the metaphysical gesture*. New York: Funk and Wagnalls.

Summers, C., & Peabworth, T. L. (1986). *The eagle and the dove*. Columbia: The Univ. of Missouri Press.

예시 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정경미

한밭대학교 영어과

305-7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산16-1

Tel: (042) 821-1798

Email: jkm4822@hanbat.ac.kr

Received in Oct. 2006

Reviewed by Nov. 2006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 2006